

자료 16. 총동문회 각종 호소문

호소문

성남시민에게 고합니다

경원대학교는 지난 30여년간을 성남시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민의 종합대학교인 경원대가 영원히 사라지게 될 위기가 왔습니다

인천의 가천 길재단과 의 통합으로 경원대학교 이름을 없애고
이길녀 총장의 개인 호인 가천대로 교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재학생들의 96%와 동문 대다수가 교명 변경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민주적이며 밀어 붙이기식의 일방적 행정이 신성한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한개인의 욕망이 아닙니다
경원대학교 10만 동문과 16,000명 경원대학생을 지켜 주십시오

이길녀 총장이 성남시에 해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천에 뿌리를 둔 가천대학의 명칭은 말도 안됩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의 개명 반대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원대를 지켜 주십시오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존경하는 성남 시민에 고합니다 .

저희는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경원대학교는 32년을 성남시민의 사랑으로 성남시와 함께 10만
동문을 배출하고 1만6,000여명의 재학생들이 공부하는 명문
사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경원대학교는 이길너 인천 길병원 원장이신분이 230억에
경원대학교를 인수하더니 경원대학교를 전국10대 사학과 G2+N3라는
구호아래 경원을 글로벌화 시키겠다고 온갖 선전과 홍보를 통해 학생들의
돈을 홍보비로 마구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에 있는 경원대학교를
기반으로 했는지 인천에 있는 가천 길재단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경원대 한방병원도 성남이 아닌 인천 구월동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천 길 재단은 인천을 모태로 발전 성공
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길너 여사 께서는 경원대를 인수후 경원대를
똥통학교에서 지금의 경원대를 발전 시켰다고 합니다(측근 김원 부총장 발언)
그리고는 경원대의 이름으로 인류대 진입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천대학교로
교명변경과 재정부실인 가천의과학대와 통합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원대 재단전입금 0 ,가천의과학대 재단전입금 25% , 경원대적립금901억,
가천의과학대 적립금 0) 또한 이길너 여사는(80세)자신의 모든것을 통합
성공에 걸겠다고 본인의 사회적 평판(?)이 더해져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을 더해 자기호인 가천으로 학교명을 결정 했다고 합니다.
이길너 여사는 이런식으로 10만 동문과 16,000명의 재학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경원대는 지리적 역사적 성남시민의 사랑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것입니다
학교 통합 과정과 교명결정하는데 또한 이길너 총장이 특채임용한 교수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온갖 비민주적인 과정을 걸쳐 결정했습니다.
성남 시장님이 발표한 100만 시민 교명반대 성명서 또한 언론사주(경인일보)로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

이길너 여사는 성남에 이루어논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남의 자랑인 경원대학교를 이용 인천에 이길너 암센타 이길너
뇌과학연구소 과천의과학대 가천바이오나노 연구소 또한 인천 송도에 6만평
건립예정인 BRC(바이오 연구단지)와 아파트형공장 바이오빌딩)
이 모든 것이 성남시민과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그리고는 성남에서는 멀쩡한 건물들을 부수고 학생들 등록금으로
새로 건물들만 짓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원 대학교가 부실 통합 과정을 거쳐 가천대학교로 학교가
바뀌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경원대를 지켜주십시오

이길너 총장은 경원대학교를 가천대학교로 바꿀 자격이 없습니다

경원대학교는 성남시민의 사랑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길너 총장은 경원의 32년 역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경원대학교는 지난 32년 동안 성남과 함께 역사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경원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성남시와 함께 해야 합니다

주무 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는 100만 성남시민과 12만 동문,재학생들이
반대하는 경원대 교명변경 불승인을 해야 합니다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배상

한나라당 가족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저는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조규호입니다. 아름이 아니오라 저희 경원대학교는 32년을 성남시민의 사랑으로 성남시와 함께 10만 동문을 배출하고 1만6000여명의 재학생들이 공부하는 명문사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경원대학교는 신동아 재단에서 인천의 길병원재단(이길여)이 혈값인 230억에 경원대학교를 인수하더니 경원대학교를 전국10대 사학과 G2+N3라는 구호아래 경원을 글로벌화 시키겠다고 온갖 선전과 홍보를 통해 학생들의 돈을 홍보비로 마구 쏟아 부었으나 성과가 없습니다. 반면에 (성남에 있는 경원대학교를 기반으로 했는지) 인천에 있는 가천 길재단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경원대 한방병원도 성남이 아닌 인천 구월동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천 길 재단은 인천을 모태로 발전 성공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길여 여사께서는 경원대를 인수 후 경원대를 똥통학교에서 지금의 경원대로 발전 시켰다고 합니다. (측근 김원 부총장 발언) 그리고는 경원대의 이름으로 일류대 진입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천대학교로 교명변경과 재정부실인 가천의과학대와 통합을 하려고 있습니다. (경원대 재단전입금 0원, 가천의과학대 재단전입금 25%, 경원대 적립금 700억, 가천의과학대 적립금 0원) 또한 이길여 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합 성공에 걸겠다고 본인의 사회적 평판(?)이 더해져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더해 자기호인 가천으로 학교명을 결정 했다고 변명합니다.

이길여 여사는 이런 식으로 10만 동문과 16,000명의 재학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경원대는 지리적 역사적 성남시민의 사랑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것입니다. 학교 통합과정과 교명을 결정하는데 온갖 비민주적인 과정을 걸쳐 결정했습니다.

현명하신 한나라당 가족여러분 이길여 여사는 성남에 이루어는 성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남의 자랑인 경원대학교를 이용하여 인천에 이길여 암센터, 이길여 뇌과학연구소, 가천의과학대 가천바이오나노 연구소 또한 인천 송도에 건립예정인 BRC(바이오 연구단지과 아파트형 공장 바이오 빌딩) 이 모든 것이 성남발전과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한나라당 가족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원대는 껍데기만 남고 알짜는 인천으로 이동할 위기에 있습니다. 경원대학교가 부실 통합과정을 거쳐 가천대학교로 학교가 바뀌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2011.5.27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장 조규호 배상

성남 시민여러분 !!

인천의 이길여 총장이 경원대학교를 자신의 호인 가천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경원대 재학생이나 교수 동문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무대포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경원대 이길여총장이 성남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원대는 07년도 280억, 08년도 240억 09년도 500억의 흑자를 내었습니다. 대학교가 왜 흑자를 내야 하겠습니까?

비싼 등록금으로 학생은 휴학해야 하고 학부모는 허리가 휩니다.

그 남은 돈 모아 놓은게 700억이 있습니다.

통합되면 이 돈은 다 인천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러한 처사도 용납 못할 지경인데 교명까지 자신의 호로 바꾼다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대학교 총동문회는 성남시민의 의지를 모아 교육과학기술부에 항의하고자 합니다.

경원대학교 개명 반대에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대학교 사수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과 함께한 32년을 지키고 싶습니다. !!

경원대학교는 성남의 대학으로 남고 싶습니다. !!

교명 변경 결사반대 경원대학교 사수. !!

경 원 대 학 교 총 동 문 회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성남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경원대학교 개명반대

안녕하세요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입니다. 다름이 아니 오라 저희 경원대학교는 32년을 성남시민의 사랑으로 성남시와 함께 10만 동문을 배출하고 1만6,000여명의 재학생들이 공부하는 명문 사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경원대학교는 이길녀 인천 길병원 원장이신 분이 230억에 경원대학교를 인수하더니 경원대학교를 전국10대 사학과 G2+N3라는 구호아래 경원을 글로벌화 시키겠다고 온갖 선전과 홍보를 통해 학생들의 돈을 홍보비로 마구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에 있는 경원대학교를 기반으로 했는지 인천에 있는 가천 길재단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경원대 한방병원도 성남이 아닌 인천 구월동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천 길재단은 인천을 모태로 발전 성공 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길녀 여사께서는 경원대를 인수 후 경원대를 똥통학교에서 지금의 경원대를 발전 시켰다고 합니다(측근 김원 부총장 발언) 그리고는 경원대의 이름으로 일류대 진입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천대학교로 교명변경과 재정부실인 가천의과학대와 통합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원대 재단전입금 0 ,가천의과학대 재단전입금 25% , 경원대적립금901억, 가천의과학대 적립금 0) 또한 이길녀 여사는(80세)자신의 모든 것을 통합 성공에 걸겠다고 본인의 사회적 평판(?)이 더해져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더해 자기호인 가천으로 학교명을 결정 했다고 합니다. 이길녀 여사는 이런방법으로 10만 동문과 16,000명의 재학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경원대는 지리적 역사적 성남시민의 사랑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것입니다 학교 통합 과정과 교명을 결정하는데 또한 이길녀 총장이 특채 임용한 교수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온갖 비민주적인 과정을 걸쳐 결정했습니다 성남 시장님이 발표한 100만 시민 교명반대 성명서 또한 언론사주(경인일보)로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

이길녀 총장이 성남에 이루어 낸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남의 자랑인 경원대학교를 이용 인천에 이길녀 암센터 이길녀 뇌과학연구소 가천의과학대 가천바이오나노 연구소 또한 인천 송도에 6만평 건립예정인 BRC(바이오 연구단지와 아파트형 공장 바이오빌딩) 이 모든 것이 성남시민과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그리고는 성남에서는 멀쩡한 건물들을 부수고 학생들 등록금으로 새로 건물들만 짓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원 대학교가 부실 통합 과정을 거쳐 가천대학교로 학교가 바뀌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경원대를 지켜주십시오

◎ 이길녀 총장은 경원대학교를 가천대학교로 바꿀 자격이 없습니다

◎ 경원대학교는 성남시민의 사랑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 이길녀 총장은 경원의 32년 역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경원대학교는 지난 32년 동안 성남과 함께 역사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경원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성남시와 함께 해야 합니다 주무 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는 100만 성남시민과 12만 동문, 재학생들이 반대하는 경원대 교명변경 불승인을 해야 합니다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배상

성남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경원대학교는 지난 30여년간을 성남시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민의 종합대학교인 경원대가 영원히 사라지게 될 위기가 왔습니
다

인천의 가천 길재단과 의 통합으로 경원대학교 이름을 없애고
이길녀 총장의 개인 호인 가천대로 교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재학생들의 96%와 동문 대다수가 교명 변경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민주적이며 밀어 붙이기식의 일방적 행정이 신성한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습
니다

교육은 한 개인의 욕망이 아닙니다
경원대학교 10만 동문과 16,000명 경원대학생을 지켜 주십시오

이길녀 총장이 성남시에 해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천에 뿌리를 둔 가천대학의 명칭은 말도 안됩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의 개명 반대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원대를 지켜 주십시오

경 원 대 학 교 총 동 문 회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 장대훈 시의장님, 그리고

성남시 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저는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조규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경원대학교는 32년을 성남시민의 사랑으로 성남시와 함께 10만
동문을 배출하고 1만6,000여명의 재학생들이 공부하는 명문
사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경원대학교는 신동아 재단에서 인천의 길병원재단(이길여)이 헐값인
230억에 경원대학교를 인수하더니 경원대학교를 전국10대 사학과 G2+N3라는
구호아래 경원을 글로벌화 시키겠다고 온갖 선전과 홍보를 통해 학생들의
돈을 홍보비로 마구 쏟아 부었으나 성과가 없습니다. 반면에(성남에있는 경원대학교를
기반으로 했는지) 인천에 있는 가천 길재단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경원대 한방병원도 성남이 아닌 인천 구월동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천 길 재단은 인천을 모태로 발전 성공
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길녀 여사 께서는 경원대를 인수후 경원대를
똥통학교에서 지금의 경원대를 발전 시켰다고 합니다(측근 김원 부총장 발언)
그리고는 경원대의 이름으로 인류대 진입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천대학교로
교명변경과 재정부실인 가천의과학대와 통합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원대 재단전입금 0 ,가천의과학대 재단전입금 25% , 경원대적립금700억,
가천의과학대 적립금 0) 또한 이길녀 여사는 자신의 모든것을 통합
성공에 걸겠다고 본인의 사회적 평판(?)이 더해져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을 더해 자기호인 가천으로 학교명을 결정 했다고 변명합니다.
이길녀 여사는 이런식으로 10만 동문과 16,000명의 재학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경원대는 지리적 역사적 성남시민의 사랑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것입니다
학교 통합과정 과 교명을 결정하는데 온갖 비민주적인 과정을 걸쳐결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 장대훈 시의장님 그리고 성남시의원님

이길녀 여사는 성남에 이루어논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남의 자랑인 경원대학교를 이용 인천에 이길녀 암센타 이길녀

뇌과학연구소 과천의과학대 가천바이오나노 연구소 또한 인천 송도에

건립예정인 BRC(바이오 연구단지과 아파트형공장 바이오빌딩)

이 모든 것이 성남시민과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성남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기업이 외부로 이전하여 지방세 공백이
우려되는 마당에 경원대는 껌데기만 남고 알짜는 인천으로 이동할 위기에 있습니다

경원 대학교가 부실 통합 과정을 거쳐 가천대학교로 학교가

바뀌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2011. 5. 17.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장 조규호 배상

존경하는 이재오 특임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장 조규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모교인 경원대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절차와 학생과 동문 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명을 바꾸려 합니다.

지금까지 경원대학교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며 착실히 명문사학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2년간 10만 동문을 배출하고 1만6천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젊고 비전 있는 대학입니다.

10여 년 전 경원대학교는 신동아 재단에서 인천의 길병원재단(이길여)이 헐 값인 230억에 인수하고, 경원대학교를 전국 10대사학과 G2N3 라는 구호아래 경원을 글로벌화 시키겠다고 온갖 선전과 홍보를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홍보비로 마구 쏟아 부었으나 눈에 띄는 성과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경원대를 졸업한 동문으로서 참으로 비통한 심정 이루 금 할길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학의 선진화를 위해 천명하신 방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동문에게 못을 치고 학생에게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 불확실하게 하는 통합은 원래 대통령께서 의도 하신 대학 선진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오로지 통합만을 위해 요식행위를 하고 서류만 꾸미기에 여념이 없는 통합 승인서는 원천적으로 무효라 사료됩니다. 통합 자체를 모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통합 교명은 역사와 규모면에서 월등한 경원대학교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이 피해를 보는 동문이 최소화되는 길이고 통합 후에도 발전 시너지를 높이는 길이라 생각 됩니다.

바꾸려고 하는 교명은 다름 아닌 이길여총장의 호인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의 브랜드명이 글로벌 적이고 10대 사학으로 진입하는데 유리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경원대학교는 지금까지 33년을 검증하여온 지금의 대학교명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가천대학교로 바꾸고 50억 이상을 홍보비로 들여 홍보해서 빠른 시간에 알려지도록 하겠답니다. 왜 어려운 시기에 쓸데없는 돈 50억을 들여 홍보해야 합니까?

지금도 학생들은 등록금이 비싸다며 반값등록금을 외치며 시위하고 있고 그것을 정책으로 받아들여 나라에서도 등록금이 낮춰 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예산 상정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유독 경원대 이길여 총장은 무리한 통합교명을 채택하여 많은 사람의 가슴에 못을 찌고 쓸데없는 예산으로 학

생들 등록금을 유용 하는 것 입니까?

2010년 교비회계를 근거로 보면 경원대 재단전입금 0.2% 경원대 적립금 901억 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느 학교에 유리한 통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교명 또한 가천대학교로 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교명을 결정하는 것도 보직교수 32명이 모여 투표해서 결정했습니다.

흔히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못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학적을 보직교수 32인이 모여 투표로 했고, 그 안에는 경원대학교역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수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왜 이길여총장은 졸업한 학교의 교명을 바꾸는데 동문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는 것 입니까?

존경하는 특임 장관님!

경원대10만 동문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교과부에서는 사립대이기에 법인이사회에서 결정 난 사항으로 승인요청서에 특별한 결격이 존재하지 않으면 승인한다고 합니다. 이미 동문회에서는 5월26일 교과부 담당자에게 학생, 동문, 성남시민의 반대서명 6500명분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6500명보다 법인 이사회 10여분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 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힘인가요? 10만 경원대동문과 16000명의 학생은 너무 억울합니다. 어디에다 하소연 한번 못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모교를 잃어 버려야 합니까?

학생총회에서 97%가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10만 동문과 100만 성남시민이 반대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교명만은 불승인하라는 의사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교명변경반대 성명서는 학교측의 언론 압력 등으로 메이저 언론에는 보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비민주적입니까?

이재오 특임장관님 많은 공사의 바쁜 일정에도 저희 억울한 사연을 들으시고 꼭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모든 교육의 시작은 학생과 함께하고 교수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걱정하고 이렇게 사연을 전합니다.

경원대학교 교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33년을 경원인으로 살아온 동문들의 목소리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월 일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장 조규호 배상

경원대학교 교명 지키기를 위한 서명을 제안 드립니다.

경원대학교는 1978년에 설립되어 10만명의 동문을 배출하고 1만6천명이 재학하는 젊고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4년 전 경원전문대학과 통합하였고 그 통합성과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또다시 인천 소재의 가천의과학대학교와 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원전문대학과 통합 후, 학생들은 갑자기 늘어난 정원으로 인해 비좁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고 교수님들도 열악한 상황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비전타워 설립 후 이런 문제가 해소 되나 했더니 이번에는 인천에 있는 가천의과학대학교와 통합을 준비 하는 것 입니다. 만약 통합을 하면 경원대는 정원이 또 500명이상 늘어납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학 선진화 방안이나 특화를 위한 통합은 미래 학생 수의 감소와 재정난에 처하는 대학을 줄이거나 없애보자는 취지로, 가능한 규모를 줄이고 특성화 될 수 있는 학과중심으로 개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교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의 발전적 통합이라는 내용을 보니 특화 되는 것들이 가천의과학대학이 가지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과 BRC, 뇌 과학 연구소 및 암·당뇨연구원 등 막대한 비용투자가 예상되는 의 과학 및 의료보건 분야인 인천의 가칭 메디컬캠퍼스 중심으로 짜여 졌습니다.

이에 반해 가칭 경원캠퍼스의 현 경원대학교의 특화계획을 보면 인문대, 공대, 음대, 미대 등이 특화되어 있고, 바이오 나노와 IT중심으로 특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이미 지난 30년의 역사속에 경원대학교가 이루어낸 것으로 통합 후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교 통추위는 이렇게 대략적이고 통보적인 단 한차례의 설명회만 개최한 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경원대학교는 성남의 역사 속에 30년을 성남시민과 함께 했습니다. 성남의 경원대와 통합을 한다면 성남 시민을 위한 성남 중심으로 특화된 통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경원대학교는 2007년에 280억, 2008년에 240억, 2009년에 500억의 흑자를 내는 학교입니다. 물론 학교가 흑자를 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재단 전입금 없이 그렇게 흑자를 낸 돈은 현재 700억이 적립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경원대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되어진 돈이기에 경원대생을 위해 쓰여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통합하면 회계도 합쳐지기에 어느 대학을 위해 쓰여 질 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통합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더욱이 비통한 것은 학교명도 가천대학교로 바꾼 다는 것입니다.

통합하면 발전한다 하지만 그것은 학생, 동문, 교수, 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 하나하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동문회를 무시하고 재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통합은 자칫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도 있습니다.

또한 30년 역사의 10만 동문을 생각지 않는 교명의 변경은 통합된 대학의 정통성과 연계성에 큰 흠결이 있으므로 교명의 변경만은 꼭 경원대학교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 통추위는 이런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통합 안을 2011년 4월 29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신청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성남의 시민 단체장님과 시민 여러분!! 성남의 역사 속에 숨 쉬고 있는 경원대학교의 교명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의 통합된 대학교의 교명변경에 '가천'이라는 명칭사용을 반대하며 대학통합에 관하며 다음과 같은 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1. 경원대학교 교명을 유지하라.
2. 학교재단은 교명변경을 반대하는 재학생들을 협박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말라.
3. 대학통합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학생, 교수, 직원, 동문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합동공청회를 개최하라.

경 원 대 학 교 총 동 문 회

경원대학교의 부실통합을 반대한다

최근 이길녀 총장이 진행하고 있는 가천의대와의 부실한 통합 진행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십만 경원인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는바 천년사학으로 거듭나기위한 진지한 고민없이 몸집 만 불리는 통합을 반대하며

1. 교명변경시도는 30년 경원 역사의 반민주적 폭거이다

삼성이 고려대를 인수하여 삼성대로 안하는 이유를 총장은 아는지?

그건 고려대의 역사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길녀총장 자신의 호를 딴 대학명으로서의 개칭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시 총장 퇴진운동에 돌입 할 예정이다

2. 재산출연선언의 물증을 제시해야

실현 가능성도 없는 언론 플레이를 그만하고 통장 잔고증명이나 출연재산의 목록을 제출해야한다.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출연 한다는 말인가?

3. 부총장의 동문과 모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 발언해 대해 공개 사과해야 그동안 인터넷에 떠도는 부총장의 모교에 대한 명예훼손은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은 찾아 볼수 없는 부총장을 즉각 퇴진시켜라.

즉각적인 사과가 없을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4. 개인우상화 작업을 즉각 중지해야 어느 대학 총장도 학내 홍보지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대학내 홍보물을 이용하자 말라

5. 전문대와의 통합 이전에 약속한 통합 4년 경원대학교 운영 결과 및 약속 이행여부를 밝혀야 4년전 약속한 통합 경원대학교의 결과를 모두 공개 하라.

6. 학생 교수 교직원 동문에게 왜 통합의 내용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밀실에서 행하고 있는지

7. 전문대와의 통합으로 지원받은 국고의 사용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8. 경원대학에 대한 그동안의 재단 전입금 내역이 극히 미미한 이유.

9. 가천대학에 대한 재단 전입금은 ? 원으로 경원대에 비해 ?배에 달하는 이유.

10. 경원대의 건축 적립금이 600억원인데 이걸 통합이후 가천대에 사용할 의욕이 짙은데 해명을 해야

11. 총장의 교육적 마인드는 도대체 무엇인가?
12. 상아탑인 대학을 병원 운영하듯이 하지 말라
13. 경원대학교의 등록금은 왜 비싼가?
세계2위의 살인적인 대학의 고액등록금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재단 출연금없이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해명 하라
14. 지저분한 오래된 강의시설을 개선하고 직원 복지에 힘써야
15. 경원대신문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6. 비전타워는 유리건물이어서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엄청난 에너지 비용이 발생하는 실패작이다.
17. 단 한번의 상의도 없이 경원대 독수리상을 철거 한것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 복원하라
18. 세상에 교문이 없는 대학은 경원대가 유일하다. 경원대의 상징인 교문을 철거한것에 대해 사과과하고 원상복구하라
19. 사과대의 폐지를 철회하라
20. 점령군처럼 행동하지 말고 모든 인사에서 경원대인맥을 50% 중용하라



경원대를 부탁해!

1. 경원대학교의 교명은 아직 바뀐 것이 아닙니다.

지난 28일 제출한 교명 변경 및 대학통합승인서는 아래의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아래>승인접수-교과부장관의사립대학대학통합심의위원회소집-심위원회의 승인심의-결정(앞으로 약 2개월 예정)

1. 소통을 거부한 채 교명을 바꾸는 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삼성그룹이 성대를 인수해 '삼성대' '이건희대'로 변경하지 못하듯이 교명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1. 10만 명의 경원대 선배들인 총동문회와 함께하면 교명변경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린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가천대로의 변경은 역사적 치욕입니다. 10만 총동문회가 일어섰습니다. 선배들을 지켜봐 주시기 물심양면의 지원을 바랍니다.

1. '가천대'로 졸업하면 당분간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가천대'는 현재 의학단과대로서 그 졸업장으로는 아직 취업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경원대'의 지난해 취업률은 22%입니다. 현재는 가천대보다 경원대가 취업시장이 현재 훨씬 더 크고 브랜드파워가 있습니다

1. 이길여 이사장의 재단인수 12년, 이길여총장의 전문대 통합4년의 성과를 돌아보세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12년간 디자인 음대 한의대의 명문진입약속을 지켜졌는지요? 전문대통합 4년 동안 로스쿨 유치 등의 성과는 어찌되었는지요? <가천대 화형식 안내> 오늘 오후 7시 비전타워 앞 인도

2011. 5. 13.

진/리/창/조/웅/지/ 경원대학교총동문회

경원대학교 후배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경원대학교 교명변경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11일 경원대와 가천의대의 통합에 관한 교과부의 승인이 났지만 향후 학교법인의 교명변경에 관한 정관개정 및 학칙개정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3명의 법인 이사들은 경원대학교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명변경에 관한 일체의 결정을 중단하도록 재학생 후배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교명개명을 공식적으로 논의 된지 6개월도 되지 않은 현재 줄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4월 이천 여 명이 넘는 재학생들이 총회를 열어 직접투표로 97%이상이 교명 변경 반대를 결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와 14명의 일부 동문들이 총회의 결과를 뒤집고 교명변경에 동의하는 날인을 하여줍니다. 총동문회는 교과부 승인과정에서 심의되었던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학교재단과 교과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지만 법적기한이 지난 지금에도 그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명변경에 관한 모든 과정이 몇몇하다면 교명변경에 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하며 총회를 역행하여 경원대학교를 팔아먹은 학생회 간부와 동문14명의 서명날인을 한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길여 총장은 교과부에서 통합승인이 나자 “가천대에 1000억 이상을 투자하는 등 남은 인생을 모두 걸겠다.”고 합니다. 이길여 총장의 12년 동안의 경원대학교의 성적표는 무엇입니까? 등록금 의존율 전국3위(2010년-86.3%) 2008년에 비해 16%나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졌습니다. 교과부 감사 자료에 의하면 31억 2천만원의 등록금을 길 의료 재단 등에 전용한 것이 밝혀져 업무상의 배임 혐의를 넘어 횡령 혐의까지도 들 수 있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학전국순위 40위, 재단전입금0.3% 과연 이길여총장의 말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를 팔아먹은 동문들이 적반하장으로 교명사수에 앞장서고 있는 총동문회에, 총동문회장 탄핵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실리를 찾아야 한다며, 8월 26일 가천동문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동문들 간의 갈등과 불신이 반복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경원대학교를 진흙탕으로 만든 이길여 총장은 지금이라도 공개사과하고 교명변경을 중단해야 합니다.

재단이사장의 개인의 아호로 학교명을 개명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교육기관을 사적소유로 만들기 위한 무자비한 횡포입니다. 경원대의 발전에 교명변경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전체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의견이 수렴 된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원대학교 후배님에게 호소합니다. 경원대학교 교명사수에 재학생, 동문들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냅시다. 타 지역에서도 교명을 되찾은 승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비민주적이며 줄속으로 진행된 교명변경에 대해 경원대학교 총동문회는 교명을 사수하기 위하여 모든 법적 물리적 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2011년 9월 1일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조규호 회장 및 동문 일동.

경원대학교 교명을 사수합시다

보낸사람 : 경원대 총동문회 11.04.24 02:04 수신차단

이 메일은 한메일로부터 발송된 메일이 아닙니다. 보낸이 정보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자세히 보기]

경원대학교 교명을 사수합시다

친애하는 경원 동문 여러분 !!

진달래 동산을 기억 하십니까?

젊은 청춘시절 그곳에서 세상사를 토론하고 고뇌를 하며 함께 기울이던 막걸리를 기억 하십니까?

금요일 오후 5시면 각 고등학교 동창회모임 장소이던 독수리 상징탑을 기억 하십니까?

98년 신동아 재단의 비리로 모교가 어려웠을 때 우리 스스로 힘으로 되살리려는 노력을 쟁그리 무시하며 무혈입성한 길 재단이 벌써 13년째입니다.

그 길재단의 이사장이었던 이길여 이사장은 급기야 경원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하며 자신의 업적을 길이 남기겠다며 경원대학교의 교명을 개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당위성, 과정, 절차, 내용, 비전 모두 중요하지만 이런것과 견줄 수 없이 중요한 것중 하나가 학교를 나타내는 그 자체인 교명 입니다.

재학생과 동문 등 학교 구성원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도 폐쇄적인 통합 추진도 질타를 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뻔뻔스럽게 자신의 호를 사용하여 개명 하려 합니다.

또한 학교 당국은 막대한 돈을 들여 언론기관 및 교내 언론사를 이용하여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만 동문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 경원대학교를 사수 합시다.

힘을 모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학교 당국에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총동문회에서는 경원대학교 사수 개명 결사반대를 천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해왔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문님들께서도 우리의 힘을 모은 다는 의미로 십시일반 교명 수호 모금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모금 계좌 : 신한은행 100-025-078773 경원대학교총동문회

입금액은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습니다.

(입금하실 때 입금인을 성함+ 교명수호 해주시면 모금운동 금액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통합에 관련한 내용과 진행사항은 총동문회 홈페이지(www.kw4u.c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통합에 관하여 동문님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 학교 당국은 통합을 제2의 창학이라 했습니다. 이로 인한 개

명은 우리의 모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원대학교를 꼭 사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모교 통합 과정과 교명사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원대학교 교명 사수 개명 결사반대 !!

경 원 대 학 교 총 동 문 회

www.kw4u.co.kr 031-750-5619 F)031-750-56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보낸일로부터 한달간 보관됩니다.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okshot
OKSHOT.CO.KR

본메일은 홈페이지관리업체인 OK동창 (주)슈빅의 OKshot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된 무료메일입니다.

근조기 보관 관리 | 동창회 전용 홈페이지 | 학회-협회전문홈페이지

* 고급근조기 초특가전문제작, 무료시안제공, 전국지점보관설치 첨단서비스 - 다이아몬드플래그 02-499-4994

* 단체모임, 동창회·단체 연말 모임 ,300석완비,서울 삼성역,호프&식사-치어걸 010-5265-3215

 일부 이미지 또는 태그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표시하기 원문다운로드

▶ 상세설명

개탄을 금치 못하며...

정말 통탄스럽다. 10만동문과 1만6천 재학생을 우롱하는 통합 안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1998년 관선이사파견 및 총장의 파견을 요구하던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 하며 무혈 입성하여 경원대 스스로의 재화의 길을 막아 버리더니 이제는 조폭 처럼 밀어 붙이기 통합을 진행 하고 있다.

도대체 대학의 정도는 무엇인가?

왜 학생, 교수, 직원, 동문과 대화 하지 않는가?

무엇이 그리도 쟁기기에 뒷구멍에서 야비하게 통합을 진행하는가?

교수와 직원 에게 행정조직을 통한 일방적 동의서만 받으면 끝인가?

이길여 총장이 경원대를 발전 시켰다 하는데 10년 동안 재단에서 얼마나 투자 했는가?

결국 학생들 등록금으로 지금까지 온 것 아닌가?

경원대는 지리적 위치상 자연 발생적 발전가능성을 잠재한 대학이다.

이길여 총장이 경원대에서 10년 동안 한 것은 여기저기 본인사진으로 도배하여 우상화 작업 한 것 아닌가

똥통학교가 이길여 총장 사진으로 도배당하여 정화돼서 발전 했는가

학교운영은 병원운영과 다른 것을 알아야 한다. 소통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린다고 대학이 발전 하는 것이 아니다.

소프트 웨어대학을 특성화해서 발전한다 하더니, 어느 날 IT대학으로 바뀌고, 로스쿨 한다며 법정대를 법대와 사과대로 분리 하더니 통합한다며 행정학과는 법대로 가고 사과대는 폐지. 도시행정학과 폐지. 눈만 뜨면 없어지는 과, 단대가 나오니 재학생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다시 법정대의 부활이고, 로스쿨은 물 건너갔는가?

이러한 마구잡이 행정에 학교의 운명을 맡기기도 의구심이 있는데, 이제는 아예 경원대를 가천대로 개명한다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으니 이는 정도의 한계를 넘어 도덕적 불감증에 다다른 것이다.

일부 인사들의 욕심에 의해 10만 동문과 1만6천명의 재학생은 안중에도 없으니 어디 교육자의 양심이 있겠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폭주기관차처럼 밀어붙이다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학교 당국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총동문회는 경원대학교 교명 사수, 개명 결사반대를 외치며 결연한 의지를 천명 하는 바이다.

10만 동문들이여! 경원대학교를 지켜 역사에 길이 빛내자!!!

재학생들이여! 두려움에 떨지 말고 경원대학교 지키기에 동참하자!!!

교수, 직원들이여! 떨쳐 일어나 경원대학교 지키기에 동참 하자!!!

100만 성남 시민이여! 성남의 대학 경원대학교 지키기에 동참 하자!!!

경 원 대 학 교 총 동 문 회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죽은 지성”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험한 시대상황에도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29 민주화 선언”등을 이끌어 낸 이들의 주역은 학생들이었습니다.

헌법전문에 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고문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때 학생이었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목숨을 걸고 부정함과 독재에 맞서 싸워 우리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보다 작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 97%가 반대하는데도 “전국 등록금 의존율 3위, 부당지출 9위”의 부실함과 독재의 대명사가 된 가천재단, 심지어 올해 “등록금 인하노력”이 없어 교육부지원 사업에 전국 97개 대학에서도 탈락되어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고됨과 여러분의 아르바이트로 매꿔”야 하는데도 “가천”에 온순하게 따라가는 모습이 안스럽습니다.

“경원대 말살의 본질”은 여러분의 아르바이트의 힘듦과 학교 설립자의 재산, 경원대 동문들, 부모님들의 피땀어린 재산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학교통합(기업식 흡수합병)에 따른 학교이름 변경의 의도는 가천의 변경된 정관 부칙, “4항 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5항 법인통합에 따른 승계”를 보시면 명백합니다. “학교법인경원학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모두 가천이 승계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발전을 위한 통합이 아닌 경원의 재산을 강탈하고 가천의 사유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이에, 묵묵히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죽은 지성”이며 노예적 순응이라고 보입니다.

더욱 걱정되는건 “경원대”라는 학생여러분의 “10만명의 멘토”를 가천이 버렸습니다.

“경원”이라는 이름으로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사회생활에 조금의 발판이 될 수 있는 “10만의 멘토”를 가천이 제자라 하며 “발전기금”을 뜯어 가며 이용하더니, 어린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경원말살”에 반대한다고 버렸습니다.

“경원말살”에 학교를 팔아 먹은 몇몇학생들을 취업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취업된 회사에 공교롭게도 경원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회사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길게 가지는 못하는게 사회현실입니다.

“가천”이 삼성, 현대, 엘지등등 대기업을 수십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모두 취업시키지 못합니다. “경원”이라는 “10만 멘토”들이 여러분 모르게 이력서를 통과시키고, 여러분을 챙깁니다.

더욱 걱정되는건 가천의 독재와 우상화로 풀린 “도덕적 해이”로 학내에서 일어나는 처장의 성추행, 교수의 성폭행, 대한민국의 30년된 종합대학을 없애고, 개인의 호로 바꾸는 물염치, 이제는 경원의 재산을 모두 강탈했다는 인식에서인지 총장생일로 개교기념일로 바꾸는 뻔뻔함등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총장개인의 엑스트라로 여러분을 기만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13년전 지금의 서울시립대와 같은 도립대학을 만들어 여러분이 “반값 등록금”으로 힘든 아르바이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기회를 부실한 가천재단이 물거품을 만들었고, 여러분의 학우가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하는, 여러분 학우와 여러분의 인생을 거리낌 없이 망치는 “가천”에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수동적인 자세로는 사회 어느곳에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죽은 지성”이고 여러분의 미래의 선택입니다. “경원대 모교말살”에 분노하고 있는 10만의 경원대 졸업생들을 “적군”으로 상대할 것인지, “멘토”를 만들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에서 경원대를 찾기위해 지역 정치인들과 법적대책, 10만 동문들의 규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교 “경원대 찾기”에 모두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980년대 여러분의 학생시절 부모님들은 “등록금 인상”에 뭉쳤고, 부실한 학교복지에 뭉쳤고, 목숨을 거시고 뭉쳐서 군사독재와 싸워 권리와 민주주의를 찾아습니다.

뭉치셔서 조금씩 준비를 하여,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와 같이 하여 “군사독재”보다 작은 “가천독재”에 맞서 짧게는 “등록금 인하”, 길게는 “도립대의 반값등록금”, “10만 멘토”를 얻어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9일

경 원 대 학 교 총 동 문 회

www.kw4u.co.kr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